

데살로니가후서 2 Thessalonians



1. 데살로니가후서의 배경 및 구성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둘째 편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쓰고 난 후 오래 지나지 않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첫째 편지에서 언급했던 문제들이 계속될 뿐 아니라 더 악화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해는 더 심해졌고,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짧은 편지를 보냈고, 편지는 세 섹션으로 구성되어, 이

교회 안에 있는 세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 바울은 먼저 계속된 박해 가운데에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 주님의 재림에 대해 분명히 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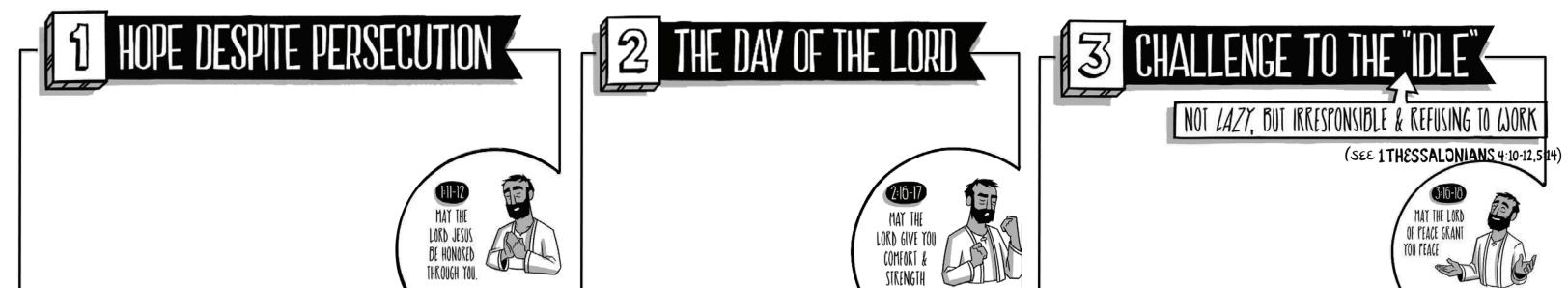
- 마지막으로 계으른 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도전합니다. 일상적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 섹션마다 끝부분에는 짧은 마무리 기도가 분명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2. 가중된 박해에도 굳건하고 신실할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함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계속된 믿음과 사랑, 그리고 특히 그들의 인내에 대한 감사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후 1:1-3). 바울은 그리스, 로마 사람들뿐 아니라 아마 유대인 이웃들까지 가세하여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더욱 팽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종교적 소수로 폭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태가 더 심해지면 그들이 예수님을 포기할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편지에서 썼던 내용을 다시 말해줍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살후 1:4-12). 예수님이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왕위에 오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보여줄 승리도, 예수님처럼 비폭력적이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박해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음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이 다시오시면, 성도들을 억압하고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린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구체적 형벌은 주님의 면전에서 그리고 그분의 능력의 영광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살후 1:9).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 그저 추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 내내 예수님과 상관 없이 사는 이들은, 결국 그들이 원하는 바를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창조주이자 왕이신 분과 영원히 아무 관계 없이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비극인 것입니다. 모든 생명과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를 택하는 것은 스스로 파멸을 겪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로 이 생각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을 사용하여 그들의 내면 깊이 인격의 변화를 일으켜주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길 간구합니다 (살후 1:11-12).

3. 종말 오해로 상한 마음 위로

그 다음으로 바울은 구체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주의 날'에 관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자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잘못된 생각을 퍼뜨렸습니다. 인간의 악에 대하여 '주님의 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이미 그들 위에 임했고, 그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종말의 날짜에 대해 예견했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 만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버림 받았다," "예수님이 아마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고통 가운데 내버리신 것 같다." 격렬한 박해로 인도, 성도들은 '예수님이 밤중에

도둑처럼 이미 오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을 곡해한 말들을 듣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결코 두려움을 일으킬 게 아닙니다. 도리어 희망과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가 도시에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그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상기시킵니다. 아주 짧게 요약하는데, 너무 짧아서, 해석하는데 풀어야 할 퍼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이사야와 다니엘에서 나온 잘 알려진 주제를 인용해 이 세상 나라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통치자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나 과거 북방의 왕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신처럼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이런 고대의 왕들이나 예언들이 어떤 이미지나 패턴들과 같은데, 그 당시 칼리굴라와 네로 황제 시대에 성취되는 것을 보았고,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인간 역사는 악 그자체에 힘을 빌어 하나님께 반항하는 통치에서 절정을 이룰 것이며, 누군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대적인 파괴와 폭력을 가하게지만,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는 반역자들, 악행을 저지르는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실 것이며,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나중에 이 편지를 읽을 독자들에게 종말론 논의를 위한 자료를 주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가복음 13장에 나온 예수님의 가르침을 회상하며, 그분의 재림을 야기하는 사건들이 매우 분명하게 모두가 알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벼려진 것으로 알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그들을 구원하러 돌아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무리 기도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의



길을 신실하게 따르도록 강건하게
해주시고 위로해주실 것을
구합니다 (살후 2:16-17)

4. '게으른 자들'에 대한 권면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바울은
게으른 자들에 대해 도전하는데,
단순히 게으르다는 뜻이 아니라,
무책임하고 스스로 일하기를
거절하고 무질서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첫
편지에서 이 문제를 실제로
다뤘었는데 (살전 4:10-12, 5:14),
상황이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이
교회의 몇몇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일하기를 거부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다뤘던 종말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의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직업을
그만두고, 일상적인 생활을
그만두어야 겠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루고 있는 이
문제는 로마의 '후견인' 관행과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하수인'이

됩니다. 부자들의 개인 조수가 되어
그들이 주는 품돈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엔 불리한 조건들이
많습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것을 말할 것도 없고, 후견인들이
맡기는 부도덕한 일들도 해주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바울이 말한
무질서한 삶을 산다는 사람들
같습니다. 이들은 일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했습니다
(살후 3:11)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가
보여주었던 모범을 다시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몸소 일해서 자급했고,
어떤 비용도 받지 않고 데살로니카
성도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자기
필요도 채우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도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기도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들이 비록
혼란과 고난 가운데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구합니다(살후 3:16-18).

BELIEF IN JESUS' RETURN & HOPE FOR FINAL JUSTICE



INSPIRED HOPE &
FAITHFULNESS FOR
PERSECUTED CHRISTIANS

WHAT YOU HOPE FOR SHAPES WHAT YOU LIVE FOR.

결론

이 짧은 편지 데살로니가서를 통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왕성하게 종말의 시간적 순서를 연구해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믿음들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예수님께 신실하고 헌신하도록 열망을 불어넣었고,

특히 폭력적인 반대를 무릅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편지를 받고 있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 편지는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이 편지는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이상이 데살로니가후서의 내용입니다.

2 THESSALONIANS



BELIEF IN JESUS' RETURN & HOPE FOR FINAL JUSTICE

NOT SPECULATION
ABOUT TIMELINES



INSPIRED HOPE &
FAITHFULNESS FOR
PERSECUTED CHRISTIANS

WHAT YOU HOPE FOR SHAPES WHAT YOU LIVE FOR.

1 HOPE DESPITE PERSECUTION

1:1-3 THANKSGIVING PRAYER
I THANK GOD FOR YOUR FAITH, Love, and ENDURANCE.
1:4-12 SUFFERING = PARTICIPATION IN GOD'S KINGDOM
JESUS FOLLOWERS SHOW THEIR VICTORY THROUGH NON-VIOLENCE & ENDURANCE
PERSECUTION HAS INTENSIFIED
THE ULTIMATE TRAGEDY
THEY WILL BE BANISHED AWAY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 FROM THE GLORY OF HIS POWER. (1:8)
JESUS' RETURN = FINAL JUSTICE
MAY THE LORD JESUS BE HONORED THROUGH YOU.

2 THE DAY OF THE LORD

PAUL SAYS: THE DAY OF THE LORD IS ALREADY UPON US!!!
GOD'S FINAL JUSTICE ON EVIL
DID JESUS COME LIKE A THIEF IN THE NIGHT? (SEE THESSALONIANS 5:2)
JESUS HAS ABANDONED US!!!! I NEVER SAID THAT!
REMEMBER WHAT I TAUGHT YOU...
A PATTERN PAUL EXPECTS TO BE REPEATED
...THE WORLD WILL KEEP PRODUCING RULERS WHO REBEL & EXALT THEMSELVES ABOVE GOD...
ROMAN EMPERORS
KING OF THE NORTH
SEE DANIEL 7:21
SEE ISAIAH 13:9
THE REBEL WILL WREAK VIOLENCE & HAVOC ON GOD'S WORLD...
BUT NOT FOREVER... JESUS WILL CONFRONT THE REBEL...
...& DELIVER HIS PEOPLE.
THE POINT: - IS NOT TO FUEL APOCALYPTIC SPECULATION
- IS TO COMFORT THE THESSALONIANS & RECALL JESUS' TEACHINGS (SEE MARK 13)
THE EVENTS LEADING TO JESUS' RETURN WILL BE OBVIOUS! YOU DON'T NEED TO BE SCARED.
PHEW!

3 CHALLENGE TO THE "IDLE"

POSSIBLE:
JESUS COULD RETURN AT ANY MOMENT!
WHY WORK? I QUIT!
MORE LIKELY:
ROMAN PATRONAGE
CLIENTS (like personal assistants)
FETCH ME SIX EGGS.
FETCH ME SIX PROSTITUTES.
...SOME OF YOU ARE LEADING A DISORDERED LIFE, NOT WORKING, BUT MEDDLING IN THE BUSINESS OF OTHERS.
PAUL'S EXAMPLE:
IMITATING JESUS' SELF-GIVING LOVE
PROVIDING FOR HIMSELF TO SERVE OTHERS FREE OF CHARGE
THE IDEAL:
WORKING HARD SO THEIR LIVES CAN BENEFIT OTHERS
MAY THE LORD OF PEACE GRANT YOU PEACE